

일제강점기 말 경성부의 공립 초등교육시설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이정우*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e-mail:yvan1@pcu.ac.kr

A Study on the Planning Standard of Seoul Public Elementary School around 1940

Jeong-Woo Lee*

*Division of Architecture, PaiCha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말 경성부의 초등교육시설 계획기준의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39년과 1942년 『朝鮮と建築』에 소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경성부의 계획기준을 운영양상, 학교규모 및 구조, 단위공간 규격 및 소요제실, 교사동 배치 및 블록플랜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서론

국내 초등교육시설은 일제강점기 이후 이른바 ‘표준화 교사(校舍)’로 표현되는 획일적 학교건축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표준화 교사’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립되어 공간구성방식이나 외관이 정형화된 학교건축을 의미하며 남향 교실에 편복도형의 블록플랜을 전형적인 특성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교사는 일제강점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동안의 표준화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학교건축의 표준은 어떤 것이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일제 강점기 학교건축의 표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표준설계제도의 운영이나 학교건축 기준과 관련하여 발견된 자료는 많지 않다. 다만, 1939년과 1942년 『朝鮮と建築』에 당시 경성부 영선과에서 적용했던 학교건축 기준이 소개되어 있어 일제강점기말 학교건축에 적용되었던 계획기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고는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시설 계획기준의 특성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2. 경성부의 초등교육시설 계획기준

2.1. 계획기준 운영 양상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적으로 공통된 학교건축 기

준이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42년 『朝鮮と建築』 21집 6호에 「各府にける於國民學校建築」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8개 부(府)의 학교건축 규격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같은 글 중에 ‘엄격한 기준은 없으나’(청진), [10, p10] ‘현재 규격 작성 준비 중’(광주)[10, p11]과 같은 언급에서 보듯이 지역별로도 학교건축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경성부의 경우는 ‘건축기준이 있으며 현재까지 신축의 경우 이를 적용해 왔으며’[9, p20] 같은 언급이나 ‘구계(矩計) 기타 구조 상세는 모두 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9, p21]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경성부 차원의 학교건축 계획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표준도 형태로도 작성되어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학교규모 및 구조

경성부 공립 초등교육시설 계획기준에서 학교규모는 18, 24, 30학급을, 학급당 학생수는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에 차이가 있어서 각각 60명과 7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조선인 학교가 보다 과밀의 상태였고 또 이를 계획단계에서부터 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구조부는 벽돌조와 철근 콘크리트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두 재료 모두 1920년대에 들어 국내

초등교육시설에 적용되기 시작한 재료들로 기존의 목조 학교가 가지는 방한상의 문제, 내구성, 내화성 문제 등에 대안으로 도입된 재료들이다. 특히 경성부는 1928년, 이후 신·개축되는 모든 교사를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기로 결정하여[7, p33]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걸쳐 철근 콘크리트조 학교를 다수 건설하였다. 하지만 1940년대 이후 철강재 사용이 제한되면서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립이 어렵게 되어 이후에는 벽돌조학교가 주로 건설되었다.[1, p118]

2.3. 단위교실의 규격 및 기타 소요 제실

단위교실의 규격은 국내와 일본에서 오랫동안 단위교실의 표준규격이었던 4칸×5칸¹⁾을 적용하고 있다. 4칸×5칸의 단위교실은 일본의 경우, 명치기(1868년~1911년)말에 해당하는 1900년대 후반 취학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이 되면서 일반화되었다. 취학률이 낮았던 근대학교제도 도입 초기에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년별로 동일한 정원의 학급구성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크기의 교실들이 계획되었다. 이후 취학률이 증대하면서 각 학년별로 동일한 정원의 학급구성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동일한 크기의 교실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 때 교실의 크기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학생수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가 요구되었는데 이 때 채택된 것이 4칸×5칸 크기의 교실이다. 즉, 4칸×5칸은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단위교실 크기의 최대치라고도 할 수 있다. 국내에 4칸×5칸 크기의 교실이 일반화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1920년대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일본식 목조 교사가 도입된 것은 통감부시기(1906년~1910년) 임시학사확장사업²⁾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건립된 보통학교 단위 교실의 크기는 50인 정원에 3.5칸×4칸이었다. 이후 초기의 보통학교 취학기피 현상이 1920년대 이후 보통학교 증설운동으로 전환되면서 학생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4칸×5칸의 단위교실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실은 일반교실보다 크게 계획되었고 준비실이 부속되어 있다. 다만 1939년 소개된 특별교실

의 크기기준과 1942년 크기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90㎡로 이는 특별교실이 교사동 단부에 배치되는 것을 전제로, 단위교실과 동일한 모듈을 유지하면서 복도까지 포함하여 계획했을 경우의 면적으로 이 때의 크기는 5.5칸×5칸이 된다. 후자는 일반교실을 평단위로 계산한 면적 20평의 1.5배인 30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때 실제 교사동 평면계획에서 특별교실의 길이는 일반교실 길이인 5칸 보다 큰 5.45칸 정도가 되어 단위교실을 기준으로 하는 모듈은 지켜질 수 없게 된다. 단위교실을 기준으로 하는 모듈 계획에서는 전자의 경우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42년 특별교실 면적을 단위교실 면적의 1.5배라는 수치상의 기준에 맞춰 단위 모듈계획을 깨뜨린 것은 1939년의 기준을 적용한 특별교실의 크기가 실제 사용상 협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특별교실의 길이 방향크기를 단위교실의 길이보다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교실은 교사동 단부에 배치된다는 원칙 때문일 것이다. 특별교실의 단부 배치 원칙이 필요했던 것은 복도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삼면 채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특별교실을 교사동 단부에 배치하는 방식은 명치기 이후 지켜져 왔고 특히 특별교실에 수도나 가스 등의 설비라인이 필요해지면서 배관상의 편의 때문에 더욱 같은 위치에 배치될 필요가 있었다.

특별교실의 종류는 이과, 가사, 직업, 재봉, 창가, 도화교실 등의 여섯 종류로 도화, 창가교실을 제외하고 모두 준비실이 부속되어 있다. 일본의 명치기 소학교에 일반화되어 있었던 특별교실이 재봉실과 창가실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5, p36] 비하여 많은 수의 특별교실이 계획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정기(1912년~1925년) 이후 아동의 실험, 실습 등을 강조했던 자유교육사상이 전파되면서 특별교실의 종류와 규모가 증대했고 이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도 특별교실의 종류와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사라졌지만 교사동과 별동으로 봉안전이 계획되어 있다. 봉안전은 일본 천황의 교육칙어 등본을 보관하는 장소로 일제의 군국주의적 교육관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일본에서는 1890년 교육칙어가 공포되고 이의 사본에 해당하는 교육칙어 등본이 각 학교에 배부되었는데, 초기에는 교직원실이나 강당 등에 봉안고의 형태로 보관되었다. 하지만 지진, 화재 등의 재난으로 교육칙어 등본

1) (교실의 폭)×(교실의 길이)를 의미함. 이하 동일

2) 초대 통감이었던 이등박문이 일본은행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자금으로 했던 일종의 교육시설 확장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편복도형의 일본식 목조교사가 이른바 '모범교사'로서 건설되었다.

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생겼고 응급상황시 교육칙어 등본을 사수하기 위해 학교장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교육칙어 등본의 안전한 보관은 학교장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 때문에 봉안전은 어떠한 재난에도 교육칙어 등본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설되었으며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각 일선학교에서 보다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형태로 건설되었다.

2.4. 교사동 배치 및 블록플랜

그림1과 2는 1939년 『朝鮮と建築』 18집6호 중 「都市に於ける小學校敷地選定に就いて」라는 글에 소개되어 있는 경성부 소학교의 계획규준도이다. 교사동만을 볼 경우 철근 콘크리트조는 3개층 1개동으로, 벽돌조는 2개층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도 차이가 있어 같은 24학급을 수용하고 있지만 벽돌조 학교의 부지면적이 16,500㎡(4,991평)임에 비해 철근 콘크리트조는 13,500㎡(4,084평)로 부지 면적에서 약20%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부지면적 기준은 1920년대 동경시 부흥소학교의 기준면적이 같은 24학급임에도 2,000평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밀의 조건이었다. 당시 경성은 일본에 비하면 학교 부지면적에 있어 '대단히 혜택을 받고 있는'[9, p12] 상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계획규준도가 소개되어 있는 같은 글에서 저자인 토옥적(土屋積)³⁾은 '부지 선정 및 획득 문제에서는 항상 곤란을 겪고 있다.' '학교건설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인근이 상당히 발전하여 시가지화 된 후이기 때문에 지가가 이미 폭등하여 학교부지로 필요한 공지(약 5,000평)는 쉽게 구하기 어렵다.'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8, pp49~50] 즉 경성부에서도 학교용지를 구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경성부 초등교육시설의 기준 부지면적은 5,000평 정도의 비교적 넓은 면적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부지면적은 결국 운동장을 넓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운동장도 교육시설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운동장

을 넓게 확보하려는 계획태도를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운동장만을 넓게 확보하고 있는 저밀도의 학교건축이 도시화가 진전되는 경성부에서 도시형 학교로서 바람직한 모델이었을까하는 의구심이다.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배치계획이

나 교사동 블록플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지 남측 운동장, 북측 교사동의 배치 원칙 아래 교사동 블록플랜은 각 실에서의 일조 조건이 가장 중요시되는 편복도형의 일자형 평면을 택하고 있다. 이 외에 그림 1과 2의 배치계획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지가 함께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지의 규모나 형상은 미리 정해진 교사동의 크기에 맞춰 그려진 외곽선일 뿐, 실제 부지가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동경시 부흥소학교의 가상평면도(그림3)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동경시 부흥소학교의 가상평면도를 보면 협소한 부지 조건에 맞춰 교사동을 부지경계선에 최대한 근접하여 배치하고 있다. 물론 이는 도로로부터의 소음, 인접건물과의 일조권 관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다는 교사동이 부지에 최대한 근접하여 배치됨으로서 학교가 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로 계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들의 접근동선이 진입 도로측에서 교사동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후면진입방식을 고려한 것은 교사동 중앙부의 교사 및 방문객용 현관과 교사동 단부의 학생용 승강구를 분리하여 계획하는 권위적인 학교설계방식에서 일탈한 진보적인 계획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옥외공간 면적을 보충하기 위해 소공원을 인접배치시켜 도시에서의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계획방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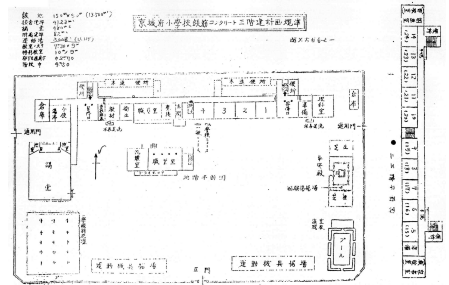


그림 1. 경성부 소학교 계획규준도 (1939: 철근콘크리트조, 출처[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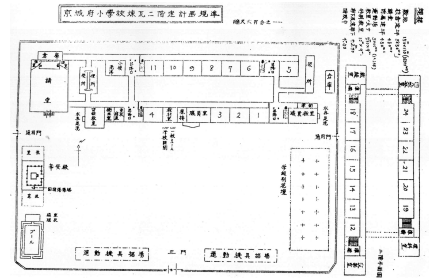


그림 2. 경성부 소학교 계획규준도 (1939, 벽돌조, 출처[8])

3) 경성부 영선과 소속으로 『朝鮮と建築』에 여러 차례 학교건축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1942년 시점에는 영선과장을 맡고 있었다.

적용되었다. 그림3의 가상평면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동경시 부흥소학교 계획기준에는 옥상공원이나 테라스 등을 활용하여 좁은 부지에서 옥외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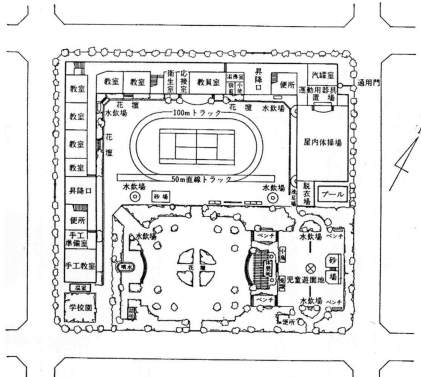


그림 3. 동경시 부흥소학교 가상평면도(1층 및 배치:출처[11])

하는 계획지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도시형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경성부의 계획안은 단위교실의 채광조건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만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넓은 운동장을 갖는 저밀 조건의, 실제로 도시화가 진전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운 학교모델로 학교건축이 가져야하는 도시 건축으로서의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성부 초등교육시설의 계획기준이 도시형 학교로의 특성을 갖지 못했던 것은 당시 학교건축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1928년 『朝鮮と建築』에는 당시 경성부 동대문 소학교장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소개되어 있다.

‘최근 일본 대도시의 학교건축은 종래의 질실(質實), 건뢰(堅牢), 통풍, 채광 등과 같은 진부한 논의에서 벗어나 학교는 문화의 축도(縮圖)라는 인식하에 그 건축양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되었다.’[6, p23]

1920년대 동경시 부흥소학교 계획을 비롯하여 일본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조 학교들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언급한 위 인용문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동시대에 이미 당시의 학교관계자들에게 주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여건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대도시의 학교건축은:인용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다. 조선에서 이와 같이 막대한 경비를 개축비에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모에 가까운 것이지만’[6, p23]

‘막대한 금액을 투입’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은 건축계획 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무모에 가까운 것’으로 포기하는 실천의지의 부족문제는 당시

학교건축계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 이면에는 ‘질실, 건뢰, 통풍, 채광 등과 같은 진부한 논의’만을 담고 있는 계획기준이 자리하고 있었다.

3. 결론

일제강점기말 경성부의 초등교육시설 계획기준은 다른 부에 비해 비교적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표준도가 작성되어 활용되기도 하였다. 경성부의 학교건축 계획기준은 단위교실의 규격 그리고 기타 소요시설의 수나 규모에 있어서는 학교규모의 증대에 대응하여 확충된 것이었으나 교사동 배치나 블록플랜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립되었던 철근 콘크리트조 학교들에서와 같은 도시형 학교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당시 학교건축 관계자들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진전된 계획논리가 실천될 수 있는 현실적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며 일조조건이라는 단일한 논리에만 천착했던 계획기준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1] 강상훈,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 [2] 東京市役所 編, 『東京市教育施設復興圖集』, 勝田書店, 1932
- [3] 藤岡洋保, 「東京市小學校鐵筋コンクリート造校舍設計規格」,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第290号, 1980. 4
- [4] 越澤明, 『東京市の都市計劃』, 岩波書店, 1991
- [5] 이정우, 심우갑, 「명치기 일본 소학교건축의 표준화 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학회지, 15권 2호, 2008.3
- [6] 『朝鮮と建築』 7집 3호, 1928
- [7] 『朝鮮と建築』 7집 12호, 1928
- [8] 『朝鮮と建築』 18집 6호, 1939
- [9] 『朝鮮と建築』 21집 6호, 1942
- [10] 『朝鮮と建築』 21집 7호, 1942
- [11] 青木正夫, 『建築計劃畫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1976